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 축산업 재도약의 장 기대

- 9월 21일(수)~24일(토)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



▲ 박람회가 개최될 대구 EXCO 전경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KISTOCK2011)가 오는 9월 21일(수)~24일(토)까지 4일간 대구 EXCO에서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희망' 이란 주제로 개최된다.

5개 생산자단체(대한양계협회, 대한양돈협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본회(대한양계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국내 유일의 축산박람회로 전체 농업생산에서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축산업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중요한 박람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 축산박람회 엠블렘

1. 20여년의 역사, 축산업에 발전 견인

축산박람회의 역사는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본회(양계협회)가 양계산업의 발전을 꾀하기 위해 올림픽공원에서 제1회 '양계박람회' 개최한 것이 박람회의 효시이다. 당시 국내외 77개 업체에서 156개 부스규모로 참가하였고, 부대행사로 양계산물 요리경연대회, 부화과정 전시, 홍보포스터 전시 등 다채로운 행사로 성황리에 치러졌다. 이 당시 외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자동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졌고 국내 기자재 산업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였다.

격년제로 개최되던 양계박람회가 위기를 맞게

된 것은 1997년 경제위기(IMF)가 닥치면서이다. 당시 본회에서는 양계 단일로는 박람회를 개최하기 힘들다는 판단하에 축산업계와 논의한 결과 축산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축산박람회로 끌고 가자는 의견이 도출되면서 2009년부터 축산박람회로 규모가 확대되어 개최하게 되었다.

축산박람회는 5개 생산자단체가 돌아가며 주관하고 있다. 본회에서는 1999년 1회와 2001년 2회 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이후에는 낙농육우협회(2003년), 대한양돈협회(2005년), 전국한우협회(2007년),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2009년)가 주관하였고 10년 만에 본회에서 박람회를 다시 준비하게 되었다.

표1. 역대 축산(양계) 박람회 개최 역사

회수	명칭	일시(기간)	장소	주제	참가수	주관
1회	'91한국양계박람회	1991. 10. 10~12	올림픽공원	미래를 향한 양계산업	77개사 156부스	대한양계협회
2회	'93한국양계박람회	1993. 8. 19~21	서울 KOEX (현COEX)	한국양계산업의 선진화	87개사 320부스	"
3회	'95한국양계박람회	1995. 8. 23~26	"	한국양계산업의 세계화	15개국 138개사 338부스	"
4회	'97한국양계박람회	1997. 6. 24~27	"	환경친화적 첨단 양계산업시대를 연다	12개국 129개사 316부스	"
1회	한국국제축산박람회	1999. 11. 12~15	COEX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의 전개	15개국 155개사 440부스	"
2회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011. 7. 5~8	"	소비자와 함께하는 우리축산	16개국 163개사 502부스	"
3회	2003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003. 7. 3~6	"	친환경 축산업의 전개로 국민에게 건강을	15개국 164개사 538부스	한국낙농육우협회
4회	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005. 8. 31~9.2	대전 KOTREX	깨끗한 환경과 안전한 축산물	10개국 235개사 606부스	대한양돈협회
5회	2007 대전국제축산박람회	2007. 9. 12~14	"	친환경 축산, 한국축산의 세계화	11개국 222개사 697부스	전국한우협회
6회	2009 대전국제축산박람회	2009. 9. 9~12 (4일간)	대전 KOTREX, DCC	친환경 축산, 안전한 축산물	8개국 186개사 719부스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7회	2011 한국국제축산박람회	2011. 9. 21~24 (4일간)	대구 EXCO	친환경 축산, 미래의 녹색희망	20개국 200개사 800부스(예정)	대한양계협회

2. 대구, 축산박람회 최종 정착지

이번 박람회는 대구에서 개최된다. 대구는 전국에서 교통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한우 등 축산업이 발달된 지역이기도 하다.

대구 EXCO는 대구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4월에 새로 증축, 완공되는 박람회장은 보다 넓고 쾌적하여 박람회장으로서 손색이 없다. 또한 8월 개최되는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세계적으로도 지명도가 높아지고 있어 국제대회로서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평이다. 주변 호텔 및 숙박업소, 음식점 등 편의시설, 주차장 또한 완벽하여 대회를 치르는데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엠블렘 확정 및 부스유치 돌입

축산박람회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박람회를 대표하는 엠블렘을 최종 확정하는 한편 국내 유치전에 적극 뛰어 들었다. 국·내외 20여개국에서 200여 업체 800부스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이번 박람회는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함께 어우러진 축산업 축제'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이미 지난해 해외업체 유치전에 들어갔다. 독일 하노버 축산박람회(EuroTier)에 참가하여 2011한국국제축산박람회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적극 홍보한 바 있다. 또한 오는 3월에 개최되는 아시아 최대 박람회인 VIV Asia 2011에도 적극적인 유치전을 벌일 예정이다. 국내 업체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참가모집을 2월부터 준비하고 있지만 과거 참여했던 업체들을 중심으로 이미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독일 EuroTier 박람회에서 축산박람회 취지를 설명하는 등 부스유치활동을 벌였다.(대회장인 이준동 회장(좌)과 유로티어 Karl Schlösser 전시책임자(우)가 공식적으로 만나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참가비는 실내의 경우 전 박람회와 동일하게 1부스(3×3m²)당 조립부스 145만원(부가세 별도), 독립부스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접수를 받고 있으며, 야외 부스의 경우 12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실내 독립부스와 동일하게 책정하였다. 해외 업체는 320만원(2,650달러, 2,000유로)을 책정하여 유치할 예정이다. 박람회 참여업체 1차 마감은 4월말까지이며 자세한 안내문은 2월중에 각 업체로 전달되어질 것으로 보인다.

축산박람회는 국·내외 신기술 소개 및 국내 축산물의 우수성을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장이 될 것이며, FTA 등에 대비한 국제경쟁력 확보, 해외업체 유치와 국내제품 해외수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좋은 자리가 될 것이다. 전 세계는 FTA 확대,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질병의 창궐로 시시각각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함께 풀어야 할 공동과제들도 많아지고 있다. 이번 박람회를 통해 그 동안 어려웠던 축산업계의 일을 마감하고 새롭게 도약하는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축산인들과 업체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있기를 바란다. 양계